



# 한울림 교회

##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 주 일 예 배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이달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순중(T국)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 28)

다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배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6:6-10

목마른 사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막으실 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찬 516)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예배당 건축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관공서의 진행이 느려져 입당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입당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3.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전과 예배당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안내데스크에 있는 릴레이 금식기도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4. 오늘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5. 예배 후 나가실 때 손소독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큰 것은 1개씩, 작은 것은 2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찬조-김유진)
6. 뉴욕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과 치매 무료 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회자도 성장하는 교회

일반적으로 저에게 토요일은 종일 주일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분주하기 보다는 고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갖습니다. 하루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어제 토요일은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배당에서 현장 새벽기도회 인도를 마치고, 교역자들과 미팅을 한 후 함께 가볍게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건축관련 zoom미팅을 가졌습니다. 잠깐 휴식을 한 후 점심 식사 후 새예배당으로 가서 김성광 형제와 함께 두 편의 설교를 녹화했습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근자에 가장 바쁜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에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삼가하는 제가 이렇게 토요일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월에 제가 출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한국에 있는 한 선교단체 설립을 도왔고, 재정 총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국을 잠시 갈 수 있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어렵고, 그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도 어렵게 되어서 모든 책임을 이월해 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2주면 되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도 자가격리를 요구해서 2주간의 격리 기간을 합하면 무려 한 달을 비우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놓고 떠나려 하다보니, 최근 꽤 분주했고, 어제는 더더욱 분주했습니다. 또한 입당을 준비하며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제가 자리를 비워 마음이 불편하지만,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더 잘 하리라 믿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주보 칼럼을 제가 현지에서 써서 보내고, 주일 설교도 외부 목사님을 초청해서 맡기곤 하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리 해보려고 합니다. 칼럼은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주일 설교도 장년사역을 함께 하는 양명철 목사님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5월 중 2번은 제 영상 설교가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역을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역자가 젊거나 후배이면 자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사역자 시절, 담임목사님이 한 달을 출타하며 담임목사 대행을 맡겼던 그 한 달 6년의 부사역자 시절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합니다. 5월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여기있는 세 교역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